

특집

□ 石油市場 동향과 전망 □

국제石油 시장의 구조적 변화

최 근 現物價格이 국제석유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석유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OPEC, 非OPEC, 국제석유회사들간의 관계, 다시 말해 석유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반변수간의 관계가 새로이 정립되고 있다. PIW가 최근 호에서 1984년의 시장동향, 원유 및 시장가격을 회고,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았다.

I. 새로운 市場 동향

한때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을 메꾸기 위한 필요악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단지 환상적이었던 現物市場이 이제 석유가격 형성에서 OPEC, 석유 메이저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으며, 때로는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유국들이 지금까지 석유가격 유지를 위해 사용해온 산유량 통제를 계속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는 한,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각각 통제권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산유국들은 가격의 최고, 최저만을 책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現物市場 동향에 따라 정책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도 石油의 現物市場을 관찰하는 일종의 방관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유량 결정 및 가격 할인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산유국들 자체도 결국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지표로서의 現物市場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 결과 現物市場 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정보는 전문 보도기관에 의해 메시지, 先物去來인 경우에는 매분간격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의 관심이 OPEC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非OPEC 산유국으로부터 산유량이 대폭 증가한데다 전반적인 석유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1984년 非OPEC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2천 400만배럴로 증가된 반면, OPEC의 그것은 1천850만배럴로 30% 감소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非OPEC 원유가 서방시장에서 中東產 원유를 구축함에 따라 OPEC 석유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 極東지역 시장이나 地中海 지역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수요, 탐사활동지역의 위치 및 정도등 제반변수들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나, 특히 세계석유 가격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전통적으로 公示價格이든 現物價格이든 세계원유가격의 기본적인 지표로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輕質油 가격을 삼아왔다. 그리하여 OPEC이든 非OPEC원유이든 판매가격, 정제이익등 책정이 Arab Light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原油의 성질, 시장, 주요정제센터와의 거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유종간 가격차도 이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수요공급의 패턴이 변함에 따라 原油 가격구조는 세 가지 영향권으로 분리되었으며, 동시에 석유제품시장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Arab Light, Iranian Light, Bonny Light와 같은 원유의 기준원유로서의 위치가 아주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부 약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대서양 연안 석유시장은 뉴욕에 WTI 原油와 연료유의 거래가 성행됨에 따라 대단히 활발해졌다. 미국에서 가격통제가 해제됨에 따라 WTI 원유는 산유국들과 동떨어진 美國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멕시코만 지역 및 중서부 정제센터(140만B/D처리)에서 기준유로 이용되고 있다.

유럽의 대서양 연안 전지역은 北海의 Brent 원유와 소련의 가스오일이 거래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Brent 원유는 하루 350만 배럴이 생산되는 北海원유의 기준원유인데, 소련산 원유와 석유제품들이 대량 수입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침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시장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인데 이 지역은 석유의 先物去來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시장으로 최근에는 Arab Light와 같은 中東産원유가 거래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대서양연안 시장의 경우 Arab Light의 원유는 약간의 상징적인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으나, 極東시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대용원유가 없는 실정이므로 강력한 거래 유종으로 등장했다. Arab Light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 원유의 생산량도 사우디 아라비아가 최고 하루 1,000만배럴의 산유량을 자랑하던 1977년 650만 배럴에서 150만배럴로 대폭 감소했다.

70년대의 석유시장 상황에 대해 OPEC 石油相들은 불만족스런 감정을 갖고 있으나, 現物市場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現物市場과 先物市場은 현재와 같은 석유시장의 침체기에는 별로 환영할 것이 못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現物市場은 구매자들이 공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선

호하던 때에는 산유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70년대에는 소비국들이 장기계약을 선호했지만, 現物베이스로 구매되는 원유량은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어 80년대초 점유율은 전체원유 거래의 10~15%에 달했다.

II. 石油도 상품이다

석유가 1980년대에 先物商品으로서 등장한 것은, 현물시장이 세계의 각광을 받으며 출현했던 1960년대의 석유시장의 양상과 아주 흡사하다. 즉 先物市場은 1980년대에 들어 OPEC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났으며, 1960년대의 現物市場의 성장은 국제석유 메이저들의 위치가 독립계 석유회사들에 의해 부식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 국제석유시장은 새로이 발견한 原油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메이저와 독립계 석유회사가 경쟁전을 벌이고 산유국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가세,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이 결과 非메이저급 석유회사들로부터 석유공급량이 증가되었으며, 現物市場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非메이저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現物價格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독립계 석유회사들은 로테르담, 지중해지역 및 카리브해 지역에 다수의 「용역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위탁정제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정제된 석유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현물시장에 유입되었다. 오늘날 先物市場은 전통적인 現物시장이 보다 더 진화되고 성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는 원유의 정제, 판매, 제품 유통부문은 물론 생산까지 포함하는 석유의 실질거래를 위한 한계적인 수급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석유시장을 이끌어 간다해도 어떤 原油 및 제품의 일시적인 과부족 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 불균형은 개개 석유회사간, 지역간, 제품간 또는 석유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시장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구매함으로써 또는 제3자 거래를 통해 균형에 달하게 된다. 現物市場 거래는 오랫동안 단기거래의 수급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변해 주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現物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양은 약간에 불과, 총 원유거래의 3-5%가 고작이었다.

Ⅲ. 現物市場의 규모

現物시장의 규모는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현재 세계전체 원유공급량의 약 3분의 2가 어떤 의미에서 現物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1은 現物시장에서 단기계약으로 거래되고, 또 3분의 1은 現物시장에 연동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시가격으로 거래되는 지분원유 및 장기계약 거래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거의 확실하지만, 다만 現物 거래를 파악하려는 데는 추측에 의한다는 것이 정확한 수량 파악에 대한 맹점이다. 생산유정에서 소비자의 휘발유 탱크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래되는 횟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現物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 결정요소인지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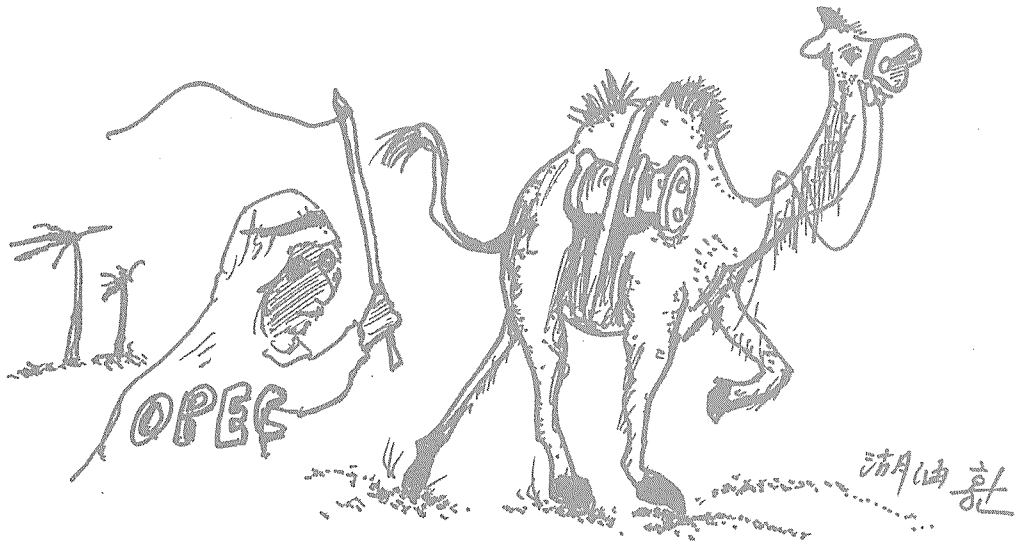
실물거래와 선물거래의 現物가격은 거래의 중심지 혹은 집산지라고 할 수 있는 로테르담, 美國의 오클라호

마주의 쿠싱, 또는 뉴욕상품 거래소(NYMEX)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장 및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한 지역시장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고도로 발달한 전자통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現物 매매거래는 전세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직접 대면으로, 전화로, 텔렉스, 컴퓨터 터미널, 전자무역 시스템, 상품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 선물거래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78년 뉴욕商品市場에서였다. 난방유로 시작한 石油先物去來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 금년초에는 960만B/D까지 증가했고, 1981년과 1984년에 거래가 개시된 휘발유는 29만B/D, 1983년에 시작된 WTI원유는 1,680만B/D로 증가했으며, 런던의 IPE에서의 가스 오일 거래(1980년 개시)도 130만B/D에 달했다. 최근에 들어 산유국들도 先物市場에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국제원유 가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PIW)

□ 漫 評 □

OPEC中質原油價인하



原油價 채찍을 더 늦춰야 됩니다.....非産油国